

사찰의 그림-조각-건축물 왜 그곳에 그 모습일까

허균씨 '사찰장식-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사찰을 장엄하고 있는 문양과 조형물은 불교의 세계관이나 깨달음을 향한 구도자들의 열원을 상징하기도 한다. 일주문은 일승법문을, 탑은 부처님을, 용은 불법수호와 함께 법당이 곧 반야웅성을 상징한다. 또한 곳곳에 장식된 연꽃 문양은 때론 지고 깨닫는 불성과 중생들의 극락왕생 열원을 담고 있다.

이처럼 사찰의 조형물들은 불교의 이상과 불자들의 열원을 간직하고 있는 불법의 보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참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조각작품 또는 아름다운 무늬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사찰 장식-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둘베개)는 그런 시각을 바로잡아 주는 책이다. 글쓴이 허균 씨(문화재전문위원) 역시 "왜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으며, 또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250여 개 사찰을 답사하고 쓴 이 책은 '장식 문양에 깃든 상징의 세계', '불전을 장엄하는 극락정토의 꿈', '조형세계에 숨겨진 불교의 진리', '지상에 펼쳐진 불국의 세계' 등 4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연꽃, 용, 귀면, 사자, 물고기 등의 형상으로 때로는 장엄하게, 때로는 익살스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사찰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 문양과 조형물의 연원을 살피면서 심오한 상징의 의미를 밝혀낸다.

사진 3백여컷 실어

불교용어 해설도

이런 점에서 (사찰 장식...)은 사찰의 그림과 조각, 그리고 건축물을 통해 불교의 세계를 펼쳐보고자 했던 불자들의 열원과 중생들을 향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불교미술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인도, 중국, 우리 나라의 전통사상과 신화, 민간설화, 그리고 경전 등을 넘나들면서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을 교차시켜 그 안에 담긴 상징의 의미를 하나씩 파헤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악한 무리를 막는 벽사(壁邪)의 기능을 가진 귀면은 고대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시바 신의 무서운 얼굴이 표현된 것이고, 최상의 조형미를 보여주는 비천상은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과일 형상의 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3·5·7·9의 기수로 이루어진 탑의 층수 역시 고대 동양의 우주관이나 음양오행사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불교 외적인 요소들을 불교의 사상 속에 폭넓게 수용해 온 역사를 보여준다. 이는 곧 사찰의 장식문양과 조형물이 당시 사회의 사상과 역사를 반영한 것임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300여 컷의 컬러 사진을 활용, 독자들의 시선과 상상력을 사찰이라는 믿음의 현장으로 이끈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불교용어와 경전에 대해 각 쪽마다 해설도 곁들여 편안한 독서를 가능하도록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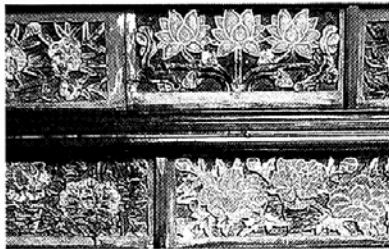
글쓴이는 "사찰의 장식문양은 단순히 길을 꾸미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훌륭한 공덕을 기리고 불국의 이상세계를 선(善)과 미(美)로써 장엄하게 구현한 것이다"며 "상징의 의미를 공부하다 보면 사찰의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한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법어사 대웅전 비천상.



◇침곡사 대웅전 복단 동자집 연경문.



◇다보사 대웅전 복단 꽃장식.

글쓴이는 "사찰의 장식문양은 단순히 길을 꾸미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훌륭한 공덕을 기리고 불국의 이상세계를 선(善)과 미(美)로써 장엄하게 구현한 것이다"며 "상징의 의미를 공부하다 보면 사찰의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한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20세기 한국불교 발자취 '한눈에'

민족사 '한국불교 100년'

20세기 한국불교 100년을 총 정리한 사진자료집 (한국불교 100년)이 민족사에서 나왔다.

이 책은 1900년 을 전후해 1999년 까지 우리 나라 불교에서 있었던 중요사건, 인물, 출판물, 전적 등 1천1백여장의 사진을 10년 단위로 묶었다. 이 중에는 1937년 태고사 건립공사 모습, 조선불교대회 기념사진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 사진들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사진집이 아니다. 10년 단위로 불교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해설을 덧붙여 20세기 한국 불교의 실상을 정리한 사료집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편자 김광식 씨(근대불교사 연구가)는 머리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의 방향을 조망하는 것이 이 책의 근본 목적이다"며 "보다 멀리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 될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값 5만8천원.

30년간 조각사 연구 논문 총정리

문명대 교수 '한국미술사...'

한국 미술사 연구의 변천 과정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 <한국미술사 방법론>(열화당)이 출간됐다.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연구하는 문명대교수가 펴낸 이 책은, 한국 미술사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60년대 이후 30여년간의 연구 방법과 해방 후에 발표된 조각사 논문을 총망라하여 분석·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법과 전망까지 논의하고 있다.

'미술사 이론과 미술사관', '미술사 방법론', '현대미술의 방향과 과제' 등 모두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특히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등에 나타나 있는 미적 기준을 새롭게 밝히고, 고대미술과 현대미술을 이어 주는 불교미술의 역할과 그 현대화 방안, 문화사로서의 미술사, 인문학과 미술사와의 조화로운 만남 등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값 1만4천원. 오종욱 기자(gobacou@buddhopia.com)

부처님 재세시 승가 생활상

태원스님 '초기불교 교단생활'

"일어날 때 머리가 걸리지 않고, 앉을 때 무릎이 편안하고 또 빗물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거하는 장소가 호화로우려는 안락을 지극한 말이다.

초기불교의 안거 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한 가지는 작은 방, 산 속의 토굴, 썩은 통나무, 외양간 등 조용한 장소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소 기르는 사탕과 장사하는 상인을 따라 안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적절한 안거 장소도 있었다. 속이 빈 나무, 노천, 앉는 자리와 눕는 자리가 없는 곳 등이 바로 그곳이다.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내놓은 (초기불교 교단생활)(운주사)은 부처님 재세시와 열반 직후의 초기불교 교단의 생활상을 문헌을 근거로 살피고 있다.

초기교단의 구성과 출가 및 귀족계층에서부터 승가의 생활과 승인의 구조적 변천, 승가에서 의



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정 한 제도와 구조, 생활모습 등 초기불교의 승가 생활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초기불교의 교단 생활은 지금과 다른 부분도 많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진하려는 초기불교의 승가상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스님의 근본 정신 망각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불교 전체가 외면당하는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초기 불교의 철저한 생활상은 돌이켜 볼 만하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희망의 대안은 '생명살림'

도법스님 산문집 '청안 청락하십니까'

불교리능학교 교장이자 인드라 생명공동체 대표인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이 21세기 희망의 메시지를 엮은 산문집 (청안청락하십니까)(동아일보사)를 펴냈다. 부제 '생명 이야기'가 암시하듯 이 책은 희망의 대안이 생명살림의 세계관에 있음을 알리고 있다.

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 그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유와 풍요의 꿈은 오간 데 없고 하루하루의 삶은 더욱 각박하고 불안하다. 따뜻한 인간성은 사라지고 생명위기의 생활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모순된 결과는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 인간 중심의 그릇된 사고와 삶의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도법 스님의 해석이다. 따라서 모순과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세계, 생명 본연의 질서를 깨달고 그에 따라 사고



간화와 생명살림의 길을 열어 가는 데 한층 힘이 되기를 바라는 생명사상의 중요성을 설파한 글과 그 동안 생명공동체를 꾸려오면서 느낀 생각들로 채워져 있다.

이 는 크게 생명에 대한 불교적 사유, 일상생활의 반성, 출가와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신앙생활의 근본 묻기, 도반들에게 보낸 편지로 나누어져 있다. 또 맨 마지막 장에는 독일의 거지성자 페터 노이아르와의 대담과 소설가 이상락 씨의 인터뷰도 곁들였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하고 생활해야 한다. 그 실천 방안으로 도법 스님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은 인간화와 생명살림의 길을 열어 가는 데 한층 힘이 되기를 바라는 생명사상의 중요성을 설파한 글과 그 동안 생명공동체를 꾸려오면서 느낀 생각들로 채워져 있다.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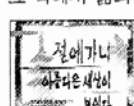


▲보현행원품(무비스님·조현춘 공역, 만인사)= 여러 부처님 예경, 그리고 공양과 업장 참회, 전법... 보현행자가 닦아야 할 열 가지 서원이다. 보현행원 10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닦을 길을 제시한 <보현행원품> 해설서.

이 책은 경전상의 산문부분인 장행(長行)과 운문부분인 계승(偈頌)으로 나눠 무비스님과 조현춘 교수가 함께 우리말로 옮겼다. 값 7천원.



▲연꽃 피우는 마음(김태일 지음, 중명)= 고승들의 지혜,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도덕과 규범, 삶의 지혜가 녹아 있다. 우화형식으로 쓴 이 책은, 방향, 고동, 성장, 완성 등 다섯 가지 주제로 크게 나눈 뒤 하나씩 풀어나고 있다.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것' 등 소주제의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열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속이 알차다. 눈 밝은 이는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것이다. 값 6천8백원.



▲절에 가니 아름다운 세상이 보인다(불교문화진흥회 엮음, 관음)= 불법에 귀의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맞춤형 불교 입문서.

사찰에서의 기본 예절부터 부처님의 생애, 법구 및 여러 전각의 의미, 부처님의 수인, 기호교리, 설화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또한 이 책에는 법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축원문, 발원문 등의 여러 견본을 부록의 수록, 법회의 편의를 도와준다. 값 8천원.



▲이 집은 누구인가(김집애 지음, 한길사)= "집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품성, 성향, 정서를 드러낸다. 집은 사는 사람의 스타일을 드러낸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집이 그려진다. 집은 곧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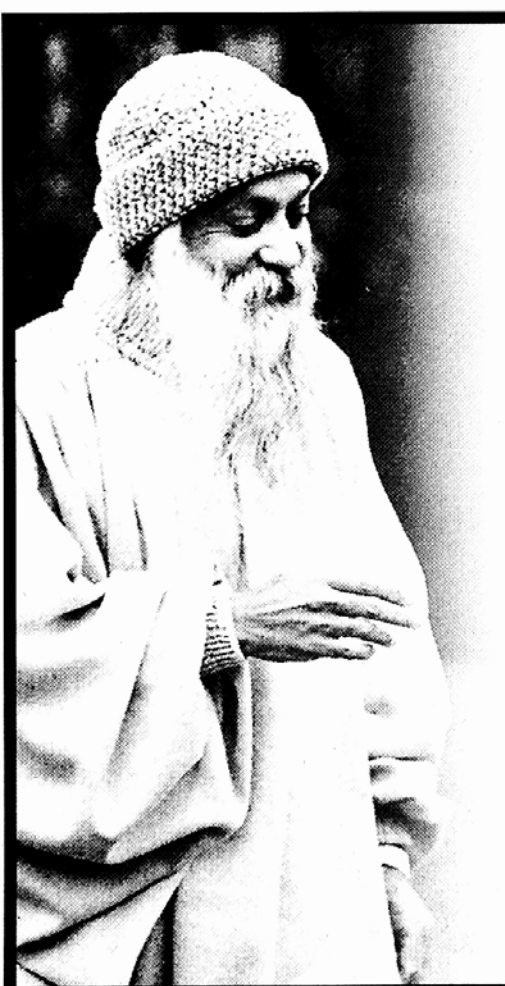
건축가 김집애 씨가 집에 대한 색다른 12가지 생각들을 담은 수필집, 집은 사람 몸과 같다. 집의 중심은 부엌이다. 집에도 성(性)이 있다. 당신은 정말 집주인 인가 등이 그중 하나이다. 9천원.

▲해는 동쪽에서 먼저 뜬다(강설스님 지음, 한강)= 살아가며 수많은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운 이야기만을 골라 적은 강설스님(제주 보문사)의 세 번째 수필집. 덧없이 흘러 버린 어제의 생활을 깊이 참회하는 수행자, 평범한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움큼 끄집어 내는 수행자만의 독특한 시각은 이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3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배랑이	전 재 성	선 재
4	민행-허버트에서 화제까지	현 각	열 림 원
5	적멸의 즐거움	정 유	우 리
6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7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8	영가천도	우 통	효 림
9	위빠까나 성자 아란 문	김 열 권	불 광
10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도서 안내:(02)737-0695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The Book of The Books

법구경 I·II

오쇼 리즈니쉬 강의 순민규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The Diamond Sutra

금강경

오쇼 리즈니쉬 강의 순민규 옮김 값 10,000원

The Heart Sutra

반야심경

오쇼 리즈니쉬 강의 순민규 옮김 값 10,000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오쇼의 법구경 강의는 방금 전처럼 울렁 울렁이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의 경전을 넘어서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진리의 선물이다.

그대는 오직 의식하는 만큼만 존재하리라. 의식은 그대를 깨어 있게 한다.

이 진언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달음의 땅'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 금강에서 가장 높고 웅으며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냥 존재하라. 삶이 춤추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진리가 찾아 오는 유일한 길이다.

집착과 소유를 버려라! 삶의 덧없음에 명상하라! 그대가 무(無)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날, 모든 붓다들이 그대를 환영하고, 열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만트라 秘典 I	05. 법구경 I	09. 만트라 더는는 깨달음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I 조주	21. 내 사랑 인디아
02. 만트라 秘典 II	06. 법구경 II	10. 심우도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남전	22. 소중함 비밀 캐버리 강론
03. 만트라 秘典 III	07. 금강경	11. 심심명	15. 輝, 빈 거울에 담긴 노래 마조	19. 법의 연꽃 이규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지유
04. 만트라 秘典 IV	08. 반야심경	12. 환안 언뜻들때때(김문)	16. 마음을 버려라 임제	20. 輝의 최고봉 백정규 대주	24. 사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책의 내용은 출판권과 무관합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llipub@chollian.net
tel. 927-2831-4 fax. 924-3236

라이프타임
리플